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NWMSU는 미국 중부 미주리 북부에 위치한 주립대학교입니다. 주립대학교답게 미국 내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해서 학교의 수준이나 시설 등은 낮지 않습니다. 학교 수준이나 시설 등은 중상위권 수준으로 꽤 높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대학과는 달리 시골에 위치하여 있어 전형적인 캠퍼스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Maryville 역시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캠퍼스타운의 느낌이 강해 분위기는 매우 평화롭고 커뮤니티 역시 캠퍼스를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캠퍼스 문화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기숙사 생활, 스포츠 등 학교 행사 등 미드 속에서만 보던 미국 캠퍼스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고 주도적으로 캠퍼스 라이프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금액>

비용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학비(학비+비용)는 5,000달러 수준이고, 기숙사는 3,200달러, 밀플랜은 2,000달러 정도됩니다. 기숙사부터 생활비용, 학비까지 모두 합쳐서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정도 학교에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비로만 따지면 정말 저렴한데, 기숙사에서 필수적으로 생활해야하고 밀플랜도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렵고 Unlimited 플랜으로 구매하셔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경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Forest Village(아파트먼트 형식의 기숙사, 4명 정도의 학생이 거실/주방을 공유하고 각자 방에서 사는 방식, 다른 기숙사에 비해 거리는 살짝 멀,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있고 밀플랜의 경우 Unlimited 구매가 강제되지 않음, 개별로 밀플랜 구매 가능, 방값도 기숙사들에 비해 저렴한 편)나 North Complex(교환학생이 머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000달러 정도 저렴함) 등의 선택지도 있으니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살 경우, 밀플랜을 무조건 평일 Unlimited나 평일/주말 Unlimited로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숙사, 밀플랜>

기숙사와 밀플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숙사는 South Complex, North Complex, Franken, Roberta, Hudson-Perrin, Dieterich and Millikan, Tower Suite 등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각 기숙사 별로 특징과 색이 있듯이 NWMSU 기숙사에도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 해리포터처럼 각 기숙사 별로 이벤트도 열리고 점수도 모아 트로피를 쟁취하기도 합니다.

South Complex -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기숙사예요. 시설은 모든 기숙사 통틀어서 제일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도 비슷한 급의 Franken 등과도 큰 차이가 없고요. 이 기숙사의 제일 큰 장점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캠퍼스 가운데 위치한 기숙사이고, 식당, 헬스장과도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여서 거리 때문에 밥이나 운동을 거른 적이 없었네요. 다른 기숙사들도 이곳과 엄청 먼 것은 아니지만 식당이나 헬스장 등을 갈 경우 무조건 South Complex를 지나쳐야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신 분은 이 기숙사 추천드립니다. 다른 기숙사들은 South Complex와 3~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있어요. 하지만 대학원생을 비롯한 다양한 학년이 머무는 기숙사다보니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조금은 정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용한 것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South Complex 추천합니다.

Franken -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시설은 조금은 낡았지만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벽이 벽돌로 되어 있어 South Complex에 비해 방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금액도 South Complex와 큰 차이가 없어서 시골벽벽한 것을 좋아한다면 Franken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으면 Franken 강추드립니다. South Complex는 미국인들 보다는 인도 친구들이나 국제학생들이 많이 사는 느낌이었어요.

Roberta, Hudson-Perrin - 다른 기숙사들과는 캠퍼스 반대편에 위치해있고 신입생들이 많이 사는 기숙사입니다. Roberta는 여성 전용 기숙사이고요. 젊은 느낌이 많이 나고 덕분에 다양한 이벤트나 교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실 건물과도 가깝습니다.

Dieterich and Millikan - Dieterich는 리모델링중이었고 코로나19 격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Franken, Milikan, Tower Suite 등이랑 함께 모여있어서 다른 기숙사들과 소통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Milikan은 위 기숙사들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해서 거리상 조금은 먼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Milikan도 Franken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젊고 활기차고 미국인들도 많이 사는 기숙사입니다.

Tower Suite - 방마다 조금씩 구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방 두개와 거실, 화장실 하나로 이뤄진 공간을 4명에서 공유하는 기숙사입니다. 1인실을 선택하시면 방 하나는 혼자쓰고 거실, 화장실을 공유하는 스위트 형태의 기숙사입니다. 개별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나의 거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3명 정도의 룸메이트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따뜻한 분위기 좋아하시면 Tower Suite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쌉니다.

기숙사는 초반에 무료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밀플랜은 Forest Village를 제외한 기숙사에 사시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합니다. 평일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평일 플랜과, 주말까지 먹을 수 있는 Silver Plan, 실버플랜에 게스트 식사, 다이닝 달러 등이 포함된 상위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음식이 질릴까봐 주말에는 밥을 해먹자는 생각으로 평일 플랜으로 구입했다가 결국은 안해먹게돼서 실버플랜으로 변경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게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해서 주말에도 밥을 꾸준히 먹으러 나갔습니다. 금액 차이도 별로 만나서 정말 돈을 아끼고 싶고 미국 음식이 금방 질릴 것 같고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밥을 안 먹겠다 하시는 것 아니시면 실버플랜 구매를 추천합니다.

밥은 뷔페식이고, 볶음밥, 추메인 등 철판에 볶는 음식(아시아 음식)이 주로 나오는 몽골리안 코너와 나초, 브리또 등 미국식 남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텍스멕스 코너, 매번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앙뜨레 코너, 감자 튀김, 햄버거 등을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칸 코너, 비건이나 몸에 건강한 음식을 다루는 트루 밸런스 코너, 원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코너, 6종이 넘는 드래싱과 수많은 선택지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샐러드 코너, 그리고 디저트 코너가 있습니다. 음료 디스펜서는 코카콜라와 펩시 둘 다 있기 때문에 양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때면 달라지는 맛의 와플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시리얼 종류도 다양하고 우유도 선택지가 많고요. 아침은 앙뜨레 코너에서 계란요리, 핫케익, 감자 등을 드실 수 있고, 몽골리안 코너에 가시면 원하는 계란 스타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새벽까지 야식도 몽골리안 코너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밀플랜 있으면 1주일에 한번 교내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것을 교환해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글과 커피, 칵테일, 햄버거 세트, 일본식 덮밥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날 때마다 식당에 들어서 커피나 디저트 등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과제를 했습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캠퍼스가 위치한 Maryville은 미국 중부의 시골 도시답게 매우 평화롭고 한적합니다. 토종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다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개방적이고 Maryville에 자부심이 강합니다.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NWMSU를 응원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NWMSU가 역사가 있는 학교이다보니 Alumni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업체들에서도 학교에 찾아와서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각종 기념품도 나눠주고 후원도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행사에서 응모권으로 TV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역 Family와 국제학생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가족 만나서 매달 영화도 같이 보고 집에 초대도 받아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래요! Maryville이 도시처럼 큰 마을은 아니지만 맥도날드를 비롯해 월마트 등 있을 것은 다 있어서 안심해도 좋습니다. 월마트나 마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금요일이나 주말 밤에는 무료로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건 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자전거 있는 친구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교환학생이 파견되는 2학기(가을학기)에는 할로윈과 학교에서 제일 큰 축제인 '홈커밍'이 있습니다. 또한 미식축구 시즌이기 때문에 마칭밴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에서 다같이 Bearcat으로 하나가 되어 학교팀을 응원하고(소속한 리그에서 꽤 잘하는 팀이어서 웬만하면 이깁니다.) 주말에는 클럽이나 바에 가서 술도 마시고(만21세 이상부터 마실 수 있습니다.) 홈커밍 때에는 지역 커뮤니티와 Alumni와 하나가 되어 퍼레이드도 구경하고, 할로윈에는 분장해서 파티도 가고 기숙사 찾아오는 어린이들한테 사탕도 나눠주고... 여하튼 매일 매일 재밌는 행사들이 있어 이것들만 찾아다녀도 시간 금방 갑니다.

Maryville은 도시로 가는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거의 갇혀 산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캠퍼스 내에서 즐길거리가 많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정말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겁니다. 여행은 Thanksgiving Break(저는 국제학생 친구들과 LA와 라스베이거스를 갔습니다.)와 학기 시작 전후로저는 미국에 일찍 도착해서 시카고 여행했고, 끝나고 나서는 워싱턴DC,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여행했습니다.)(충분히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점이 큰 단점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서울에 살다보니 시골 캠퍼스 라이프와 자연, 그리고 멋진 노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캠퍼스에 갇혀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캠퍼스 내 친구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어요. 도시에 가고 싶으면 주말마다 Kansas City 내려가는 미국 친구들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소비자행동론, 범죄학, 퍼블릭 스피치, 매니지먼트 이렇게 4개 과목 수강했습니다.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하셔야 하고, 여기서 더 수강하시게 될 경우 학점마다 학비가 추가됩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수업에 열정적이고 준비도 잘해오십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인데요, 짧은 영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시니깐 용기를 가지고 발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학생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퍼블릭 스피치 수업 같은 경우, 4~5차례 주제를 정해서 5분 정도 발표를 해야하는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 수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쌓은 용기를 바탕으로 다른 수업에서도 과제 발표할 때 먼저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리 발표 대본을 쓰고 읽어도 좋으니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보세요.

미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P/F로 점수를 치환하니 F만 안 받으면 되긴하는데요, 저는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퀴즈같은 과제가 나오고, 중간/기말시험도 매주 나온 퀴즈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업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업 활동도 좋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종일 공부만 하는 교환학생 친구를 보고 안타까웠거든요.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국제학생 동아리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어에 관심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East Asian Club 내에 한국어 소모임도 있어요. 여기서 멘토 활동 같은거 하시면서 미국인 친구들과 교류해도 좋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 매주 하루 정도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만나서 활동 진행합니다. 저는 나중에 게을러져서 자주 못나가긴 했는데 다양한 동아리가 많으니 용기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친구 사귀기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학교 운동 시설 같은 경우, 엄청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본 헬스장 중에서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따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운동기구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센터에는 배드민턴, 농구, 배구, 라켓볼, 탁구 등 다양한 구기 운동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운동 좋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나가서 친구 사귀기에도 좋습니다. (기숙사에도 탁구대나 당구대는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부 리그가 있어 운동 좋아하시면 여기 참여하셔서 챔피언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스파이크볼 챔피언에 선정되어서 챔피언 티셔츠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캠퍼스에서 차타고 조금 나가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레크레이션 시설이 있는데 학생이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끔 캠퍼스 내에 레크레이션 기구들 가져와서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캠퍼스 호수에서 카누도 타는 것도 진행하고 암벽 등반도 가끔 운영한답니다. 비싼 학비 내고 간 만큼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캠퍼스 근처 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파티도 많고 클럽이나 바도 갈 수 있으니 술 마실 수 있는 나이이거나 잘 드신다면 여기에서 미국의 파티와 밤 문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타운이어서 그런지 술 값도 싸요. 개인적으로 술 마시면 영어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ㅎㅎㅎ

영어 잘 배우고 싶으시면 도서관 2층 Writing Center에서 영어 대화 세션이나 첨삭 세션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저는 학비나 생활비, 여행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고 싶은 마음에 교내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했습니다. 12학점 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좋은 일자리 구하시면 충분히 일과 학습 병행 가능합니다. F1 비자 학생은 일주일에 20시간 밖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일해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시급도 높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교내 스타벅스에서 근무했어요! 근무하면서 동료 학생이나 학생 손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영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 같아요. 문화와 환경이 다른 미국인과 국제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살다가 NWMSU에 있으면서 매일 다이내믹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다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비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약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약 빨리 하시고 서류 잘 챙겨서 비자 인터뷰 가시길 바래요. 셔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항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미리 학교에 도착정보를 알리고 셔틀 일정을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학기 끝나고도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Thanksgiving break 때도 공항과 캠퍼스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Thanksgiving break는 1주일 정도되는데 학교 식당과 기숙사(기숙사에 머물 시 추가 비용)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다가올수록 비행기 값이나 숙소 값 모두 비싸지기 때문에 미리 마음 맞는 친구 찾아서 여행 계획 및 예약 진행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NWMSU는 토플이나 IELTS 외에도 토익을 받아주는 거의 유일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토플 성적이 부족하거나 토플 점수 따는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토익 점수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학교 환 밖에 없기 때문에 장학교환을 준비하시는 분께는 '저렴한 학비'와 더불어 '토익 지원 가능'은 이 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진도 넣고 좀 더 정리해서 이 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담당 선생님이나 제 이메일, 휴대전화로 연락주시면 NWMSU 앰버서더로서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oony3691@naver.com) 블로그나 유튜브에 관련 컨텐츠 올릴 계획이어서 연락주시면 알려드릴게요!